2024년 04월 27일 20시 45분

- 1978. 09「두꺼운 삶과 얇은 삶」

선창에 나가 서너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.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면, 옷나무와 발목까지 빠지던 펄의 감촉이 맨 처음 되살아나오고, 가도가도 끝이 없던 여름날의 황톳길의 더위와 모깃불의 매캐한 냄새가 나를 가득 채운다.

- 1962「나르시스 시론-시와 악의 문제」

불행히도 그는 육지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바다 동물이다. (…) 바다 동물은 영원히 달성되지 않을 바다에의 향수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.

- 1964「말라르메 혹은 언어로 사유되는 부재」

에덴을 그리며 수면만을 쳐다보는 나르시스를, 그 나르시스의 고뇌를 당신들은 아는가.

- 1964『존재와 언어』의 '후기'

정말로 바다로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다로 가는 노력을 나는 그쳐본 적이 없다.

- 1977「묘지 순례」

내 책상 앞에서 좋은 작품을 읽을 때, 나는 그에게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 것이랴.

- 1988「책머리에」, 『분석과 해석 : 주(⊠)와 비(⊠)의 세계에서』

또다시,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고 풍문은 전하고 있다. 과연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? 그것은 헛된 바람이 아닐까? 나는 주저하며 세계를 분석하고 해석한다.

- 1984「젊은 시인들을 찾아서」

나라는 육체 속에는, 나보다, 타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서식하고 있다.

- 1987. 04. 20, 『행복한 책읽기』

내 사유의 주체는 내 육체이다.

- 1963. 03「신 없는 시대의 질주」

항상 나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, 동요하고 있는 듯하다. (…) 그러면서도 나는 기웃거리고 있다.

- 1975. 05『시인을 찾아서』

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? 그것은 나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? 그 질문은 아직도 계속된다.

- 1970「한국 소설의 가능성」

도식화하지 말라, 당신의 상상력으로 시대의 핵을 붙잡으라.

- 1974.10-1975.05「아르파공의 절망과 탄식」

자기 자신의 발전의 단계가 환하게 보일 때까지, 자기를 객관화할 것. 그 경우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?

- 1985「예술적 체험의 의미」

예술 작품 속에서 계속 살고 싶다, 스스로 구멍이 되어 구멍을 막고 싶다, 그 무의식적 의지가 예술을 바라게, 욕망하게 하는 것이다. 그렇다면 예술 작품 속의 편안함은 모든 다른 편안함을 스스로 막는 편안함이다.

- 1962「나르시스 시론-시와 악의 문제」

욕망의 무리들을 감지하는 자—그것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는 자—그는 시인이다.

- 1975.9.24「김현 예술 기행」

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에게로 가까이 간다!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비밀을 쥐고 있다.

- 1975「인간의 고향을 찾아서 : 미셸 망수이 교수와의 대화」

잘못 읽는다는 것은 다른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읽는다는 뜻이다.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구축케 하는 독법이다.

- 1974.10-1975.05「아르파공의 절망과 탄식」

안중근(⊠⊠⊠)의 권총 사용은 한용운(⊠⊠⊠)의 펜이나 김교신(⊠⊠⊠)의 잡지와 마찬가지로 이론이며, 실제인 것이다.

- 1977「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한 문단의 비판」

무용한 것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. 그 즐거움은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떠돌이의 즐거움이다. (…) 예술이 자유로운 것은,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.

- 1988「미셸 푸코의 문학비평」

나는 어떤 사상가의 어떤 한 생각에 관심을 쏟기보다는, 그가 그런 생각에 왜, 어떻게 다다르게 되었을까라는, 그 생각까지의 과정에 더 관심을 쏟는다.

- 1983「문학사회학」

구리로 만들어졌으되 황소의 울음을 우는 시칠리아의 암소처럼, 문학사회학은 사회학이되 문학의 울음을 울어야 한다.

- 1992「행복의 시학」

이미지는 순수 상상력의 소산이며, 존재의 한 현상, 말하는 존재의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. 그것은 상상한다는 긍정적 욕구로 산다.

- 1984「젊은 시인들의 상상 세계」

나는 타자다, 그러니까, 세계는 바뀌어져야 한다.

- 1986「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」

그들의 한국어는 토속적 한국어와 사변적 한국어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한 한국어였다. 더구나 그들이 본 세계는 사일구의 푸른 하늘이었다.

- 1977. 03「고통의 정치학」

참된 것은 고통 속에서 배태된다!

- 1988. 2. 20 「행복한 책읽기」

사람은 두 번 죽는다. 한 번은 육체적으로, 또 한 번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짐으로써 정신적으로 죽는다.

- 1978「욕망과 금기」

진실은 결국 진실화 과정 속에 있다. 진실 속에서 인간은 살 수가 없다. 인간은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속에서 산다.

- 1974.10-1975.05「아르파공의 절망과 탄식」

나는 다시 내 유년기의 바다에 와 있었다. (…) 나는 모래밭에 주저앉았고 북해의 바닷물을 만졌다. 그리고 소리쳤다. '어머니'라고.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